

다수준 분석을 이용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연희, 구민정, 최문지, 김영미*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Factors Affecti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Adolescents Using Multilevel Analysis

Yeon-Hee Choi, Min-Jeong Gu, Moon-Ji Choi, Young-Mi Kim*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adolescents at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levels. **Methods** : Participants were 2,032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4th-year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in 2013.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level analysis. **Results** : Individual factors affecti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adolescents were health status, ego-resilience, and experience of visiting foreign countries. Learning activity, school regulation,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community spirit were significant factors at environmental level. **Conclusions** :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ealth status, improve positive resilience, activate a multicultural experience program, establish friendly relations with teachers, adhere to social norms, and strengthen community spirit fo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Key Words : Adolescen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ultilevel Analysis

‡ Corresponding author : Young-Mi Kim(jooyene@nate.com)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Received : Nov 23, 2017 • Revised : May 1, 2018 • Accepted : May 30, 2018

I.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 국제결혼, 유학생, 혼인귀화 등의 증가로 다양한 문화 배경과 국적을 가진 유입 이민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수는 2,049,441명으로 2007년 722,686명에 비해 약 2.84배 증가하였으며[1], 유입 이민자의 수가 전체 인구의 3% 이상으로 UN이 제시하는 다문화 국가의 기준 2.5%를 넘고 있다[2]. 다문화 국가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외국인 주민과의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수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

이러한 외국이주민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다문화 수용성 조사연구[2]에 의하면 외국이주민의 40.7%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고 우리국민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2015년 53.95점으로 2011년에 비해 2.78점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다문화 수용성 상위 20%에 속하는 국민의 평균지수가 70점인 것을 고려하면 다문화 수용성이 다소 낮은 실정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외국이주민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리국민들은 자국민화 외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건립부터 다민족으로 출범한 호주는 이민자 선별부터 입국 및 다문화 공공정책에 이르기 까지 정부주도의 통제와 관리를 통해 실질적 수혜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성공적인 다문화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3]. 반면 오랜 이민의 역사나 경험의 축적 과정 없이 빠르게 다문화국가로 이행된 우리나라는 과거 단일민족국가라는 강한 인식과 전통적인 가치로 인해 민족적 정체성과 통합성이 강조되어왔다[2][4]. 이러한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이주민에게 우리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를 강요하는 문화와 이주민의 출신국가나 피부색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야기하며[2], 이는 현재의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대변할 수 없고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를 지향하고 상대적으로 다문화 역사가 오래된 외국 여러 나라에서도 종교문제, 자국민의 인종차별적 태도로 다문화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5]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논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이란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을 나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들을 동화시키거나 개선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태도[4]를 말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문화 수용성’은 필요한 적응 능력이다.

다문화 사회 진입으로 인하여 인구 구성에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에서 한국인들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은 자국민과 다문화 국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4]. 특히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낮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수용으로 인해 사회나 학교에서 소외받고 차별당한다고 느끼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6]. 이러한 차별적 태도가 장기간 지속되면 향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사회에 대한 부당함과 불만을 느껴 내집단에 대한 강력한 동일시가 이루어져 사회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4]. 나이가 집단정체감이 약화되어[6] 자국민과 다문화 국민으로 양분된 사회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4] 다문화사회에서 전개될 다양한 문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사회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 및 발달한다[7]. 이에 청소년기에 내면화된 다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다문화 구성원들과 공존해야하는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문화 사회로의 부 적응적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8]. 즉, 청소년은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 인식,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므로[7][8] 이 시기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요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 거주지, 건강상태, 자아탄력성, 해외방문경험, 교사관계, 교우관계, 양육방식, 학업성취, 공동체 의식 등이 제시되었다. 개인 요인 중 성별에서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연구[2]와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7]가 있었다. 거주지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으로 지역구분이 클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았으며[2] 청소년의 건강수준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적응능력인 자아탄력성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7], 해외방문경험 또는 다문화밀집도에 거주하거나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 개인 내적 요인 외에 외적 환경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긍정적인일수록[7], 학교규칙에 적응을 잘 할수록, 학습활동에 만족할수록[4]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졌으며 교우관계[8], 교사관계[7][8][10], 공동체 의식[4][7][9][10]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특정 변인들의 영향력은 확인하였다. 하지만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발달한다는 생태학적 관점에 비추어볼 때[7] 청소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문화화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환경적 영향력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

화수용성에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수준 분석방법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관계를 맺는 환경 요인을 다수준 분석하고 개인 수준과 환경수준 변인 간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여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정책에 활용도가 높은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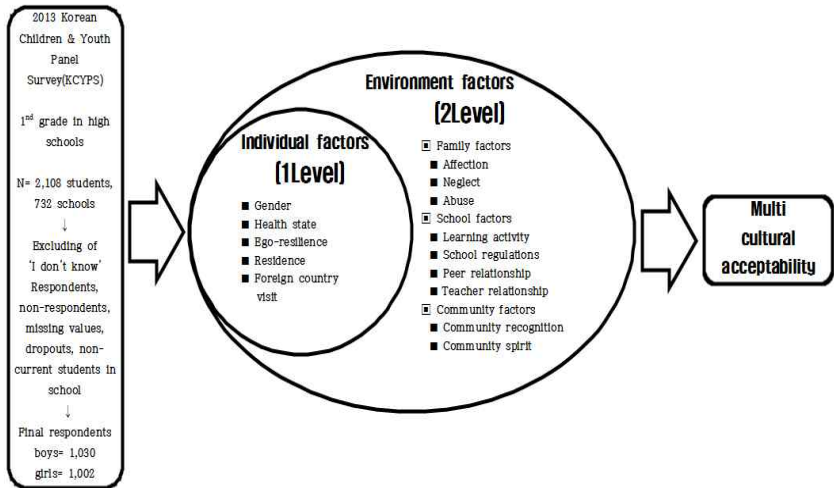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수준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수준 및 환경수준 요인이 청소년기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11]의 제4차 년도(2013년)인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KCYPS는 전국 초중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층화다단계표집 방식을 통해 2010년 구성된 초1, 초4, 중1 표본 패널을 매년 추적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조사된 732개 학교의 2,108명 가운데 모름 응답, 무응답자 및 결측값, 탈락자, 재학생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남 1,030명(50.7%), 여 1,002명(49.3%) 총 2,032명으로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K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2017-0108)을 받았다.



<Figure 1> Study framework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항목은 다문화수용성, 성별, 건강상태, 자아탄력성, 해외방문경험, 거주지, 방입, 학대, 애정,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지역사회인식, 공동체 의식이었다.

다문화 수용성 척도는 Yang & Jeong[12]의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인지, 정서, 행동영역 문항 중,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묻는 행동영역 5문항을 사용하였고,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성별은 남녀로 구분하였고,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 평가로 1개의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은 Block & Kremen[13]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Yoo & Shim[14]이 번역한 뒤 수정·보완한 것으로 총 14

문항을 사용하였고,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해외방문경험은 지난 1년간 해외를 방문한 경험여부, 거주지는 행정구역에 따라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동지역 이상은 중소도시 이상, 읍면 지역은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방입과 학대는 Huh[15], Kim[16]의 아동학대 문항 중 본 연구목적에 맞게 각각 4문항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방입이 적고, 학대가 적음을 의미한다. 애정은 Huh[15]의 부모 양육태도 척도 중, 허부요인 애정 4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습활동, 학교 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는 Min[17]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문항을 Jeong[18]이 재인용한 것으로, 각각 5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습활동은 한 문항을 제외하고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에 잘 참여함

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은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규칙을 잘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교우관계는 한 문항을 제외하고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교사관계는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인식은 Carolina Population Center(2009)의 ADD Health의 문항[19]을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총 6문항을 사용하였고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공동체 의식은 Kwon[20]의 민주시민 의식 조사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총 4문항을 사용하였고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고, 통계적 분석의 유의수준은 .05미만으로 정의하였다. 개인수준 요인, 환경수준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개인수준 요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 t-test 및 ANOVA를 시행하였다. 개인수준 요인과 환경수준 요인에 대한 다수준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SPSS분석기능에서 혼합 모형 분석 방법(Mixed model analysis method) 중 위계적 선형 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시행하였다. 집단 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개인수준 요인 분산(Level 1 σ^2)과 환경수준 요인 분산(Level 2 σ^2)으로 $ICC = \text{Level 2 } \sigma^2 / (\text{Level 1 } \sigma^2 + \text{Level 2 } \sigma^2)$ 의 계산식을 통해 산출하고, 그에 대한 유의성으로써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환경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모형

(Null)을 Model 1, 개인수준 요인 모형(Individual level factors)을 Model 2, 환경수준 요인 모형(Environmental level factors) Model 3, 개인수준 요인 및 환경 수준 요인 모형(Individual level factors & Environmental level factors) Model 4로써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및 개인수준 요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개인 수준 요인 중 성별은 남학생이 50.7%, 여학생은 49.3%이었다. 93.1%의 대상자가 건강하다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은 매우 높은 경우가 32.2%, 높은 경우 22.6%, 낮은 경우 22.2%, 매우 낮은 경우 23.0%이었다. 거주 지역은 중소도시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85.2%,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는 14.8%이었다. 해외를 방문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89.5%로 대부분 이었다.

개인수준 요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은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15.09점, 여학생은 15.28점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매우 건강하다가 15.34점, 건강한 편이다가 15.07점, 불건강한 편이다가 15.46점, 매우 불건강한 경우 16.38점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자아탄력성에 따라서는 자아탄력성이 매우 높은 경우 16.09점, 높은 편인 경우 15.12점, 낮은 편인 경우 14.76점, 매우 낮은 편인 경우 14.38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이상에서 거주할 경우 15.22점, 농어촌에서 거주할 경우 14.94점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5$). 해외 방문 경험에 따라서는 해외

방문을 경험해 본 경우는 15.88점, 해외 방문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는 15.10점으로 나타나, 해외 방문을 경험한 경우가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Table 1>.

2. 대상자의 환경수준 요인의 특성 및 다문화 수용성

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은 15.18±2.82점이었다.

환경수준 요인에서 가족 요인 중 애정은 11.95±2.20점, 방임은 12.26±1.99점, 학대는 13.32±2.45점이었고 학교 요인 중 학습활동은 13.86±2.47점, 학교규칙은 14.68±2.45점, 교우관계는 15.56±1.90점, 교사관계는 14.39±2.91점이었다. 지역 요인 중 지역사회 인식은 16.53±2.96점, 공동체 의식은 11.91±2.04점이었다. 변수별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모두 2이하로써 정규 분포성을 충족하였다<Table 2>.

<Table 1>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ccording to Individual-Level Factors (N = 2,032)

Variable	n (%)	M ± SD	t or F	p	Scheffe's
Gender					
Boy	1,030(50.7)	15.09 ± 2.82	-1.54	.124	-
Girl	1,002(49.3)	15.28 ± 2.81			
Health state					
Very good	626(30.8)	15.34 ± 2.95	2.18	.089	-
Good	1,266(62.3)	15.07 ± 2.75			
Bad	132(6.5)	15.46 ± 2.80			
Very bad	8(0.4)	16.38 ± 2.97			
Ego-resilience					
Very higha	654(32.2)	16.09 ± 2.95	41.45	<.001	a>b>c, d
Highb	459(22.6)	15.12 ± 2.54			
Lowc	452(22.2)	14.76 ± 2.63			
Very lowd	467(23.0)	14.38 ± 2.71			
Residence					
≥Medium and small city	1,732(85.2)	15.22 ± 2.80	-1.61	.107	-
Rural area	300(14.8)	14.94 ± 2.91			
Foreign country visit					
Yes	214(10.5)	15.88 ± 2.80	3.87	<.001	-
No	1,818(89.5)	15.10 ± 2.81			
Total	2,032(100.0)	15.18 ± 2.82			

3. 대상자의 환경수준 요인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상관관계

환경수준 요인과 다문화 수용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환경수준 요인과 다문화 수용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애정($r=.16, p<.001$), 방입($r=.19, p<.001$), 학대($r=.08, p<.001$), 학습활동($r=.18, p<.001$), 학교규칙($r=.28, p<.001$), 학우관계($r=.27, p<.001$), 교사관계($r=.24, p<.001$), 지역사회 인식($r=.13, p<.001$) 및 공동체 의식($r=.41, p<.001$)에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개시도 중 115개구를 개체변수로써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수준 분석으로 파악해본 결과 기초모형(Model 1)의 Random effect를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에 차이를 나타내는 환경수준 요인의 분산(Level 2 σ^2)은 .30($p<.01$)로

집단 내 상관계수(ICC)는 $r=.04$ 만큼 환경수준의 변량이 나타나 다문화수용성이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요인 모형(Model 2)의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일 경우($B=.31, p<.05$),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B=.15, p<.001$), 외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B=.70, p<.001$)에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졌고, 건강상태는 좋을수록($B=-.25, p<.05$)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개인수준 요인만을 투입한 Model 2에서 환경수준 요인의 분산(Level 2 σ^2)은 .26($p<.01$)이었고, 환경수준 요인에 대한 집단 내 상관계수는 $r=.04$ 만큼 환경수준의 변량이 나타나 다문화 수용성이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수준 요인 모형(Model 3)의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학교규칙을 잘 준수할수록($B=.14, p<.001$), 교우관계가 좋을수록($B=.10, p<.01$), 교사관계가 좋을수록($B=.06, p<.01$),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B=.45, p<.001$),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졌고, 학습활동을 잘 참여할수록($B=-.08, p<.01$)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영향을 주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Level Factor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 = 2,032)

Variable	Min	Max	M ± SD	Skewness	Kurtosi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5	20	15.18 ± 2.82	0.16	-0.28
Family factors					
Affection	4	16	11.95 ± 2.20	-0.28	0.50
Neglect	4	16	12.26 ± 1.99	0.04	0.41
Abuse	4	16	13.32 ± 2.45	-1.11	1.20
School factors					
Learning activity	5	20	13.86 ± 2.47	-0.20	0.80
School regulations	5	20	14.68 ± 2.45	-0.05	0.84
Peer relationship	8	20	15.56 ± 1.90	0.19	0.18
Teacher relationship	5	20	14.39 ± 2.91	-0.01	0.11
Community factors					
Community recognition	6	24	16.53 ± 2.96	0.13	0.53
Community spirit	4	16	11.91 ± 2.04	-0.02	0.76

<Table 3> Correlation of Environmental-Level Factor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 = 2,032)

Variable	Affection	Neglect	Abuse	Learning activity	School regulations	Peer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Community recognition	Community spirit	Multi cultural acceptability
Affection	1									
Neglect	.57***	1								
Abuse	.33***	.12***	1							
Learning activity	.34***	.34***	.20***	1						
School regulations	.24***	.27***	.15***	.47***	1					
Peer relationship	.32***	.37***	.25***	.45***	.43***	1				
Teacher relationship	.31***	.30***	.06*	.40***	.38***	.44***	1			
Community recognition	.24***	.21***	.06*	.23***	.19***	.28***	.31***	1		
Community spirit	.23***	.26***	.09***	.35***	.38***	.42***	.35***	.27***	1	
Multi cultural acceptability	.16***	.19***	.08***	.18***	.28***	.27***	.24***	.13***	.41***	1

* p < .05, ** p < .01, *** p < .001

이와 같이 환경수준 요인만을 투입한 Model 3에서 환경수준 요인의 분산은 (Level 2 σ^2)은 .22($p < .01$)이었고, 환경수준 요인에 대한 집단 내 상관관계수는 $r = .03$ 만큼 환경수준의 변량이 나타나 다문화 수용성이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요인 및 환경수준 요인 모형(Model 4)에서 개인수준 요인의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환경수준 요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은 높을수록($B = .07, p < .001$), 외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B = .56, p < .001$)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졌고, 건강상태는 좋을수록($B = -.26, p < .05$)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영향을 주었다. 환경수준 요인에서는 학교규칙을 잘 준수할수록($B = .14, p < .001$),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B = .05, p < .01$),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B = .42, p < .001$)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졌고, 학습활동에 잘 참여할수록($B = -.07, p < .01$)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영향을 주었다. 개인수

준 요인과 환경수준 요인 모두를 투입하여 개인수준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환경수준 요인에 따른 Model 4에서 환경수준 요인의 분산(Level 2 σ^2)은 .23($p < .01$)이었고, 환경수준 요인에 대한 집단 내 상관관계수는 모델 2와 동일하게 $r = .04$ 만큼 환경수준의 변량이 나타나 다문화 수용성이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IV. 고찰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개인수준과 환경수준의 위계적 구조를 가진 KCYPS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다수준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수준 분석을 이용한 기초모형에서 환경수준의 분산(level 2 σ^2)이 .30($p < .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다수준 분석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Table 4> Multilevel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 = 2,032)

Fixed effect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Estimate	Estimate	Estimate	Estimate
(intercept)		15.17***	9.50***	5.46***	5.03***
Individual factors					
Individual-level factors (Level 1)	Gender		.31*		-.02
	Health state		-.25*		-.26*
	Ego-resilience		.15***		.07***
	Residence		-.18		-.17
	Foreign country visit		.70***		.56***
Family factors					
	Affection			.01	-.02
	Neglect			.05	.05
	Abuse			.01	.04
School factors					
Environmental-level factors (Level 2)	Learning activity			-.08**	-.07**
	School regulations			.14***	.14***
	Peer relationship			.10**	.05
	Teacher relationship			.06**	.05*
Community factors					
	Community recognition			-.01	-.01
	Community spirit			.45***	.42***
Random effect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Estimate	Estimate	Estimate	Estimate
Level 1	σ^2	7.64***	6.96***	6.16***	6.02***
Level 2	σ^2	.30**	.26**	.22**	.23**
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04	.04	.03	.04

* p < .05, ** p < .01, *** p < .001

이에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의 총 분산 가운데 4.0%가 환경수준의 지역 간 차이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지역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의 개인수준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환경수준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수준 요인을 통제 한 후, Model 4까지 순차적인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단변량 분석결과, 개인수준 요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은 자아탄력성정도, 해외방문경험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군이 다문화 수용성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자아탄력성과 다문

화 수용성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7]와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다른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자아탄력성 증진계획이 결합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해외 방문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2][6]. 그러므로 해외방문을 통해 다른 문화를 경험한 청소년은 다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게 되어 좀 더 편견 없이 수용적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다수준 분석 중 Model 2의 개인수준 요인에서 성별, 건강상태, 자아탄력성, 해외방문경험여부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다문화 수용성이 더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2][6][21]이며 여학생은 관계를 중시하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높은 공감능력으로 인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21]. 따라서 학교에서 성별간의 특성차이를 반영한 다문화교육활동 운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았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상태는 다문화 인식간의 연관성이 낮아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7]와 건강수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9]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건강상태가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발달단계 특성 차이로 인해 중학생과 달리 고등학생은 건강상태를 다른 맥락에서 인식한 결과인지, 다문화 수용성과 건강상태 간의 다른 매개변수의 개입이 있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그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아탄력성도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Park[7]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스스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짐으로써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진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다문화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아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해외방문경험 여부도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Min et al.[6]의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연구에서도 해외여행을 통해 타 문화 접촉 경험을 가졌거나, 다문화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타 문화를 접하

고 그들과의 교류가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2] 타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어서 문화적 다양성에 수용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문화를 접할 기회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은 [6] 다문화청소년들과 함께 활동 유형을 다각화 하는 다문화적 활동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문화 수용성을 발달 단계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10]에서 해외방문 경험이 없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상반된 결과가 있어 추후 연구를 통해 관련성을 명확하게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수준을 통제한 후 환경수준의 변수를 투입하여 다수준 모형 분석 결과에서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사관계 및 공동체 의식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학습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았다. 이는 단지 교과위주의 적극적인 학습활동 참여만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22] 학습활동의 내용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열한 입시전쟁으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려[23] 타 문화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이 저조한 청소년의[6] 다문화적 이해 함양을 위해 반면견적 내용을 반영한 교과 학습 및 대중매체나 온라인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학교규칙을 잘 준수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았는데 학교규칙과 다문화 수용성간에 연관성이 있으며 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4]와 유사하다. 학교규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태도를 가지며 다문화사회의 변화된 규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여[4]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또래들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청소년과 교사간의 관계가 다

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은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4][7][8][10][22]. 이는 청소년은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 도덕성 및 타인에 대한 이해능력이 발달하게 되며[8] 이런 태도가 그대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청소년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뢰관계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더불어 교사의 다문화적 인식과 태도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22]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다문화이해능력을 증진시켜 줄 다문화적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공동체 의식 또한 다문화 수용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이라 제시한 연구[4][7][9][10][22]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편향되지 않고 타문화 사람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 강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적 인성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견지에서 보면[24] 다문화적 환경에서 봉사활동 체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면 궁극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조사연구로 다문화 수용성과 영향요인 간의 인과성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어 결과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이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원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달리 다수준 분석방법을 시행하였다. 이에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까지 포괄하여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함으로써 더욱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한 적합한 중재전략을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2016년 3월 31일제4차 KCYP(2013년, 고1)을 이용하여 개인수준 요인과 환경수준 요인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수준 분석으로 연구하였다.

개인수준 요인에서는 건강상태, 자아탄력성, 해외방문경험이, 개인수준 요인을 통제한 후 환경수준요인에서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사관계, 공동체 의식이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개인수준에서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긍정적 자아탄력성 향상과 함께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문화 체험 활동이 접목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수준에서 고려해보면 교사와 학생간의 우호적 관계형성 뿐만 아니라 수용적인 다문화 태도와 가치관이 수립된 교사로부터 다문화 관련 지식과 긍정적인 다문화인식 증진을 둔 학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회규범을 잘 준수하여 우리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력을 도모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영향요인이 시간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본 연구결과와 최근자료를 활용한 고등학교생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간의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비교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지역별 다문화 수용성 관련요인을 고려한 차별화된 다문화 수용성 증진 전략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2. S.S. Ahn(2015), The 2015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p.1-592.
3. J.H. Kim(2012), Improving Multicultural Attitudes of Korean Adolescents in Response to the Crisis of Multiculturalism: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Exploration of Factors Affecting Multicultural Receptivity,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Vol.8(6);183-208.
4. M.H. Park(2015),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Life Adaptation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 With a Focus on Parameters of Social Outlook, Journal of Korea Culture Industry, Vol.15(4);21-30.
5. M. Stehle(2012), White Ghettos: The 'Crisis of Multiculturalism' in Post-unification Germany,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Vol.15(2);167-181.
6. M.S. Min, S.S. Ahn, Y.S. Kim, B.Y. Sun, M.J. Lee(2012), Research and Study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by Adolescent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port, pp.1-285.
7. A.S. Park(2017), Ecosystemic Factors that Affect the Multicultural Receptivity of the Yout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2(1);93-106.
DOI: 10.21097/ksw.2017.02.12.1.93
8. T.H. Lee, S.Y. Lee, Y.S. Han(2016),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Teacher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mong Adolescents in Korea: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22(1);65-85.
DOI: 10.20406/KJCS.2016.02.22.1.65
9. M.S. Kim(2014), Study of Youth's Community Awareness Impa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Vol.4(2);36-64.
10. S.K. Un(2016),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 Compared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20);685-695.
DOI: 10.5762/KAIS.2016.17.10.685
11. <http://archive.nypi.re.kr>
12. G.M. Yang, G.G. Jeong(2008), A Study on the Promo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Youth for Social Integrati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p.2-346.
13. J. Block, A.M. Kremen(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2);349 - 361.
DOI: 10.1037/0022-3514.70.2.349
14. S.K. Yoo, H.W. Shim(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Society Educational Psychology, Vol.16(4);189-206.
15. M.Y. Huh(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Ewha Womans University, pp.1-94.
16. S.W. Kim(200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s Adjust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pp.1-83.
 17. B.S. Min(1991), The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Self-Concept on Academic Achievement, Hongik University, pp.1-61.
 18. H.S. Jeong(2009), The Influence of Attachment to Mother and School Life Adjustment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s Optimism, Dankook University, pp.1-59.
 19. <http://www.cpc.unc.edu/projects/addhealth/faqs/addhealth>
 20. H.W. Kwon(2004), A Study on the Democratic Citize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pp.1-72.
 21. E.J. Seol, O.B. Chung(2012),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Levels of Korean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19(2);91-114.
 22. J.H. Lee, H.J. Park, K.K. Kim(2014),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Adolesc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41(3);5-34.
 23. O.S. Cho, J.A. Paik(2014), The Effects of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School Bullying Victim on Suicidal Ide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8(2);233-244.
 24. M.S. Jeon, S.N. Park(2016), The Effect of Community Spirit on Participation Time to the Youth Volunteer Activities-Mediating Effect of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Youth Volunteer Activitie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6(8);228-237.